

## 도로 교통 안전화를 통한 교통 선진국 진입

한 민 홍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의 도로 교통이란 인체로 말하자면 혈관과 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의 원활하고 안전한 소통은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한국도로교통협회를 비롯하여 관련기관들의 관심과 투자속에 새로운 도로들이 동서남북으로 시원하게 뚫려져 있으며 그 정돈된 모습은 어느 선진국에 못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교통사고 면에서는 선진국이라 자처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아마도 국민의 급한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사고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대답은 후자인 것 같다. 우리는 그동안 “빨리빨리”의 우선 때문에 사고정도는 감수해도 좋지 않느냐는 식의 경제 원칙에 너무 빠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 세기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안전운전의 기치를 걸고 나온 이 마당에 선진 대열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도 빨리빨리 대신 안전운전의 복지 지향적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V 뉴스에 항상 보도되는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자동차 사고, 119 대원들이 동원된 유압절단기 사용 장면 등 끔찍한 사고는 운전의 두려

움과 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의 사회활동 파괴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지원하에 (주)고속도로 정보통신공단과 고려대학교는 속도제한 경보장치 개발하여 일반에게 선보인 바 있다. 이는 도로 전방 상황을 운전자에게 전달하므로써 운전의 안전과 편안함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무모한 과속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경우는 강제적으로 기계에 의한 감속 조치에 의하여 안전을 도모하였다. 이는 ITS 사업이 계획 및 구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첫 걸음이었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널리 확대 적용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럽이나 일본이 이와 같은 시설 응용을 기획 전시하려는 시점에서 한국은 벌써 속도제한 시스템의 개발, 응용의 시작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도로의 활용면에서 어느 선진국보다 비좁고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 체증의 문제는 항상 상존한다고 본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의 선진화 된 도로 시설 못지 않게 안전 증진의 투자도 곧 뒤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